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10. 2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요 럽

- 英 정보기관, 자국내 극우 테러리즘 증가 경고
 - 10.14 MI5 「켄 맥컬럼」 국장은 “많은 젊은이들이 온라인에서 미국 극우주의자들과 연계되어 관련 테러의 증가가 우려된다”고 언급
- 佛, 무함마드 만평으로 수업 진행한 중학교 교사 피살
 - 10.17 佛 경찰은 「무함마드」를 풍자한 ‘샤를리 에브도’의 만평을 소재로 수업(10.5)을 진행한 역사 교사(사무엘 프티, 47세)가 거리에서 살해되었으며, 체첸 출신(남,18세)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되었다고 발표
 - * 용의자는 트위터에 피해자의 현장 사진과 “무함마드를 경시하는 악마를 처형했다”라는 글 게시

미 주

- 美, 항공기 운항 위험 초래한 제트팩* 조종자 조사 착수
 - 10.14 美 연방항공청(FAA)은 LA국제공항 인근(1.8km)에서 제트팩을 이용해 날아다니는 남성이 목격되어 주변을 운항 중인 항공기들에게 주의하도록 경고했으며 FBI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
 - * 가스 또는 물을 뿜어내는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어 이동하는 개인용 운송 수단
- 美 아시안 인권단체, 아시아계 증오범죄 피해실태 분석
 - 10.18 同 단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국내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2,680건이 발생했으며, 중국(40.8%) → 한국(15.4%) → 베트남(7.9%) → 필리핀(7.3%) → 일본(6.6%) 順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
 - * 한인들의 외모만 보고 중국계로 오인해 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

아 · 태평양

- 아프간 정부, 탈레반의 공격으로 민간인 251명 사상
 - 10.14 아프간 내무부는 탈레반이 정부와의 평화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지난 2주 동안 575차례의 폭탄 공격과 자폭 테러를 자행해 251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
- 서울중앙지법, 테러자금 송금한 우즈벡 노동자에게 실형 선고
 - 10.18 서울중앙지법은 '16.5월 국내에 입국해 공장에서 일하면서 해외 무장테러단체에 자금(600만원)을 보내 '테러자금 금지법' 위반혐의로 구속기소('18.6) 된 우즈베키스탄인(남, 34세)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

중 동

- ISIS, 사우디에 보복 공격 지령
 - 10.18 ISIS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바레인, 아랍에미리트(UAE) 간 관계 정상화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, “이슬람을 배신했다. 독재정권의 수입원인 송유관·공장시설 등을 공격하라”는 내용의 음성을 SNS에 공개

아 프 리 카

- ISIS, 아프리카서 재기 움직임
 - 10.18 WP는 ISIS가 아프리카 곳곳에서 토착 군사조직 구성원을 흡수해 세력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, 美 정부는 아프리카 주둔 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어 ISIS의 재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진단
 - * 서아프리카에서 테러로 '19년 4,825명 사망, '20.10월 기준 5,365명 사상자 발생

파키스탄, 「베나지르 부토」 前 총리 대상 자살폭탄 테러

- '07.10.18 파키스탄 남부 도시 카라치에서 「베나지르 부토」 前 총리가 귀국 퍼레이드를 벌이던 도중 자살폭탄 테러로 사망 136명·부상 250여명 발생
 - * 「부토」 前 총리는 테러 직전 휴식 차 차량안으로 들어가 위기를 모면하였으며, 테러 발생 직후 서둘러 숙소로 대피
- 테러범은 군중 속으로 수류탄을 1차 투척한 뒤 몸에 폭발물을 지닌 채 2차 자살폭탄 테러 감행
- 「부토」가 탄 차에서 불과 5m 지점에서 차량 2대가 폭발했으며, 15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
- 테러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없었으나, 파키스탄 정보 당국은 '탈레반' 등 최소 3개 이상 테러단체가 사건을 공모하였을 것으로 추정
- 「부토」 前 총리는 2달여 뒤인 '07.12.27 라왈핀디에서 총선 유세 중 또 다른 자살폭탄 테러로 사망

< 파키스탄 탈레반 (TTP) >

- (결성) '07. 12 알카에다가 '파키스탄의 FATA(부족자치주) 지역 내 군사작전에 대한 저항 및 무장투쟁 강화'를 위해 13개 소규모 무장단체들을 연합하여 결성한 극단주의 테러단체('11.7 UN 지정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북서부 부족지역(FATA) 및 아프간 접경지역(쿠나르주 등)
- (활동수법) 부족지역내 게릴라戰 및 페샤와르 등 주요도시 폭탄테러 등 자행, 중앙 집권적인 아프간 탈레반과 달리 각 부족별 조직이 자율적으로 활동
- (주요테러) '07.12 라왈핀디에서 前파키스탄 총리 암살, '11.5 페샤와르 국경수비대에 자폭테러, '13.9 페샤와르에서 교회 대상 자폭테러, '14.6 카라치市 진나국제공항 동시다발 공격, '16.1 바차칸대학에서 총기난사 등